

# 한국사회의 ‘또 하나의’ 여가 트렌드

: 불교적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유승무

## [국문 초록]

최근 한국사회에서 수행체험(혹은 불교적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여가상품소비 중심의 여가생활이 행복지수를 높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소외를 심화시키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교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수행체험 참가자)이 느끼는 행복은 어떤 유형의 행복이며, 그러한 행복의 깊이(혹은 진정성)는 어느 정도인지, 수행체험 참가자들 중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더 큰 행복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과연 불교적 여가활동은 소외된 여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등의 의문을 해결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교적 여가활동은 고통이나 불행을 피해야 한다는 불교의 행복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적 즐거움을 추구하기 보다는 정신적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수행 프로그램이다. 둘째, 불교의 행복관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불교적 여가활동을 통한 만족도 및 행복감이 커진다. 셋째, 불교적 여가활동이 소외된 여가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종교 활동으로서의 수행이 여가활동으로서의 수행으로 응용되어야 한다.

주제어: 또 하나의 여가 트렌드, 불교적 여가, 수행, 정신적 행복, 불교적 행복관

## 1. 머리말

### 1) 최근 한국사회의 여가 풍경

<풍경 1>: 육체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여가

‘전국 해수욕장 일제히 개장’. 현대 한국사회에서 피서, 휴가, 여가가 연상되는 대표적 기사다. 그리고 ‘해운대 100만 인파, 경포대 50만 인파’ 등의 기사는 아직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여가, 휴가, 피서를 동일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수욕장을 다녀오는 것이야말로 휴가를 보내는 전형적인 방법임을 암시하고 있다. 실제로 매일 ‘9 to 5’에 얽매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한국인들에게 휴가는 유일한 여가활동이며, 가족과 함께 집을 떠나 피서지를 향하는 것이 휴가 및 여가를 보내는 최선의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는 여름 바다의 피서 현실이 한여름의 아스팔트보다 더 삭막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피서 길의 교통체증에다가 피서지의 각종 호객행위와 바가지요금, 문란한 피서문화, 밤새 지속되는 광적인 소음과 폭죽 그리고 오는 길의 교통체증에 이르기까지, 피서의 시작부터 마무리의 순간까지 스트레스의 연속이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휴가 혹은 여가를 통해 행복을 느끼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가슴 속에 상실감과 허전함, 답답함과 짜증, 불안함과 초조만 한가득 담는다.

<풍경 2>: 정신적 양식(糧食)을 채우는 여가

최근 우리사회의 일각에서는 주체적 여가활동, 즉 주체 스스로가 직접 체험하는 여가활동이 일종의 붐(Boom)을 이루고 있다. 한국불교계에서 제공하는 각종 체험 여가프로그램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예컨대

전국의 많은 사찰에서 일명 템플스테이라 불리는 산사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체험 프로그램의 종류는 계층별로 다양하기도 하거니와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에 따라 다양하다. 최근에는 뮤지엄 스테이 혹은 템플 콘서트와 같이 템플스테이를 응용하거나 혹은 템플스테이와 문화행사를 결합한 템플스테이 응용 프로그램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불교적 여가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은 참가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여유롭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행복하게 만드는데 있다.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통의 원인인 탐·진·치를 멈추게 하는 것인데, 그러한 수행의 직접적인 결과가 바로 심리적 안정이고 궁극적 결과가 고통이 없는 상태 즉 지고의 행복 상태인 열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불교여가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 여가상품의 물신화를 넘어서 있기도 하거니와 그 참가자들은 시원한 바람소리와 계곡의 물소리, 새소리와 풍경소리, 스님의 독경소리와 염불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

## 2) 연구목적

이상의 두 가지 풍경은 최근 한국사회의 보편적 여가활동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그 대안을 불교적 여가활동에서 찾아보기 위해 다분히 목적의식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두 풍경을 대조적으로 제시한 의도는 이 글의 대전제와 무관하지 않다.

이 글은 크게 두 가지 대전제에서 출발한다. 첫째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점점 더 여가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 혹은 행복지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림

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여가활동은 소외된 여가활동이기 때문에 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불교적 여가 활동을 대안으로 선택했는가? 그것은 두 번째 풍경에서 드러난 불교적 여가 활동의 본질적 특성 때문이다. 게다가 그러한 특성은 우리의 전통 문화와도 맥을 같이 하지만 2500년 이상의 생명력을 지닌 고유한 불교문화이기에 최소한 한국사회에서는 향후에도 강인한 생명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sup>1)</sup>

문제는 ‘불교적 여가활동이 과연 기존의 소외된 여가활동이 비해 참여자를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답은 본질적으로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참여자의 취향이나 기대가 여가만족도 및 참여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교적 여가활동은 최소한 정신적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중시하는 취향의 사람에게는 기존의 여가활동에 비해 그들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겠지만 육체적 즐거움에 탐닉하고 문명의 이기와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행체험 붐도 조성되고 있으며, 불교적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도 점점 더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현대인의 소외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데다가 육체적 즐거움은 충족할수록 소외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역설 때문으로 생각되지만, 정밀한 분석을 요한다.

이렇게 볼 때, 불교적 여가활동과 관련된 학문적 과제는 다음과 같

---

1) 홍승표(2006)은 ‘수행과 낙도로서의 여가’라는 논문에서 수행으로서의 여가가 상품화되고 소외된 여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체계적으로 논증한 바 있다. 물론 그의 연구가 낙도로서의 여가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수행으로서의 여가를 불교적 여가활동에만 한정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은 제한적이지만, 대안의 여가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타산지석의 가치를 충분히 갖는다.

은 의문을 해결하는 것이다: 불교적 여가활동은 무엇이며, 누가 왜 거기에 참가하며, 그들이 느끼는 행복은 어떤 유형의 행복인가? 그리고 그들 중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더 큰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과연 불교적 여가활동은 어떤 조건 속에서 소외된 여가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2. 불교적 여가활동, 불교의 행복관, 그리고 그 관계

### 1) 불교적 여가활동(?)

앞에서 서술한 풍경 중에서 전자의 풍경은 기존의 여가개념으로도 잘 포착되지만 후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특히 후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불교의 수행 개념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sup>2)</sup> 수행문화로 인식하는 성향이 남아 있기도 하거니와 그러한 수행문화가 여가문화로 응용된 것도 최근의 현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러한 여가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도 않다. 때문에 ‘여가의 차원에서 후자의 여가 활동(혹은 여가 현상)을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라는 과제는 그 자체로 유의미하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통상 노동시간을 벗어난 시간이나 노동시간 이외의 찌투리 시간을 여가(시간)로 인식하고 있으며, 생산관계 속의 노동과 대비되는 활동 즉 놀이, 게임이나 레크리에이션을 여가활동으로 여긴다. 게다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관계 속의 노동만이 가치생

---

2) 불교에서는 모든 공부가 기술지식의 습득과는 거리가 먼 마음공부였고, 자신의 정신적 안정 곧 행복을 가져다주는 마음공부가 곧 마음을 너그럽게 하는 여가였고 그 결과는 인격을 키워가는 것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노동과 구분되는 별도의 여가시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수행시간만 존재한다.

산의 원천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여가활동은 무가치한 활동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여가를 이와 다르게 인식한다. 비록 불교에서도 여가시간을 노동 이외의 틈새 시간 혹은 찌투리 시간의 존재를 인정하지만<sup>3)</sup> 그 시간은 결코 게으르거나 한가하게 놓고 즐기면서 보내는 시간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야말로 경전을 읽고 자신의 마음을 닦는 수행의 시간이다. 때문에 여가시간은 무가치한 시간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참여자의 마음이 가장 안정된 상태에 이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가는, 근대적 물질문명의 관점에서 보면, 무가치한 여가로 보일런지 모르지만 불교적 정신문명의 관점에서 보면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지고의 가치를 지닌 여가이다.

문제는 근대적 세계관에 젖어 있는 우리가 이러한 여가를 여가로 간주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육체적 즐거움을 주는 것만을 여가로 간주하는데서 빚어진 오류이다. 그러나 여가학자들의 여가논의에 따르면 불교적 여가활동은 여가의 범주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여가이다. 일찍이 뉴링거(Neulinger, 1974)는 여가를 ‘존재 또는 마음의 상태(a state of being or mind)’로 보았는데, 그 요체는 ‘자유의 자각(perception of freedom)’이다. 저명한 여가학자 굿베이(Godbey)도 존재로서의 여가를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는 여가’로 정의하고 있다: “여가는 개인적으로 즐겁고, 직관적으로 가치 있고, 신념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고의 사랑으로부터 행동할 수 있도록 문화와 물리적 환경이라는 외적 강제

---

3) “새우리말 큰 사전”(삼성출판사, 1975)에 따르면, 가(暇)의 훈이 바로 순 우리말 ‘겨를’인데, ‘겨를’의 출처가 석보상절(釋譜詳節)과 같은 조선조 불교문헌이다. 이렇게 볼 때, 매우 오래 전부터 한국불교에서도 여가를 ‘틈새 시간’을 의미하는 ‘겨를’로 이해했음은 분명하다.

력으로부터 상대적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다(Godbey 저/권두승 외 옮김, 2005).” 이렇게 볼 때, 진정한 의미의 여가는 주체가 자신과 대상 사이의 장벽을 넘어 대상 세계에 대한 지극한 사랑(혹은 자비)의 마음으로 가치체계 및 신념체계를 추구하는 존재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여가를 존재의 상태(혹은 불교적 의미의 ‘마음의 상태’)라는 관점에서 정의할 때, 만족스러운 여가란 마음의 평안(상태)을 가져다주는 여가를 의미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불교적 여가활동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여가, 즉 참여자로 하여금 존재의 상태 혹은 마음의 안정 상태에 이르게 하는 활동이다. 동시에 이는 여가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 즉 물질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소비주의 여가관이 진정한 의미의 여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듯 여가의 개념을 참여자의 존재의 상태 혹은 마음의 안정 상태(혹은 심리적 안정 상태)로 정의하면, 동양문화의 다양한 수행 및 수련프로그램이 모두 여가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최근의 불교적 수행 체험프로그램들이 모두 여가활동 프로그램으로 쉽게 활용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 생각된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템플스테이 및 그 응용프로그램, 각종 명상 프로그램, 각종 수련회, 성지순례 그리고 심지어 불교적 운동 프로그램 및 차 마시는 일, 심지어는 절하는 것이나 사경하는 것과 같이 전통적인 종교활동까지도 마음의 안정 상태를 추구하는 불교적 여가활동에 속한다<sup>4)</sup>.

문제는 ‘이러한 불교적 여가활동이 과연 지속성을 가질 것인가?’이다. 어떠한 여가활동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참여자의 행복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한다.

---

4) 더 나아가 박수호(2006)는 불교여가활동을 이완 기능을 하는 다도와 기도, 단련기능을 하는 선무도와 절, 성찰의 기능을 하는 선, 체험의 기능을 하는 템플스테이와 수련법회로 구분하여 논의함으로써, 종교행위로 간주된 기도나 절까지도 여가활동에 포함시킨 바 있다.

다. 행복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불교적 여가활동은 통상적인 육체적 즐거움(세속적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불교는 내세에서 신에 의한 구원을 진정한 행복으로 간주하는 유신론적 행복과도 거리가 멀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교적 여가활동이 행복으로 귀결되느냐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불교의 행복관을 살펴보아야 한다.

## 2) 행복의 역설과 불교의 행복방정식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교는 세속적 즐거움이나 신에 의한 구원을 추구하지 않는다. 불교는 ‘어떻게 행복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불행이나 고통을 피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스튜어트 맥크리디, 2002). 왜냐하면 불교의 관점에 따르면 고통이나 불행의 근원은 탐욕이며, 행복을 얻으려는 것조차도 탐욕을 키우는 것에서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탐·진·치를 삼독으로 간주하는 불교에 따르면, 육체적 쾌락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대중적 여가활동은 행복으로 귀결되기는커녕 오히려 행복의 장애물-불교에서는 이를 수행의 마장 혹은 마군이라 부른다-이다. 심지어 돈오(頓悟)를 추구하는 선불교에서는 깨닫겠다는 집념을 버리라는 역설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조차 욕망을 부추겨 깨달음에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불교의 논리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행복의 역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욕망을 보다 만족스럽게 충족할수록 행복지수도 높아질 것이란 가정 하에 그 충족의 물질 토대 즉 물질적 부의 추구에 전념해 왔다. 그러나 잉글하트에 따르면 일정정도의 부 이상에 이르면 부는 바로 그러한 부의 충족 때문에 더 이상 행복지수를 높여주지 못한다<sup>5)</sup>.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미국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이웃의 가난한 나라인 쿠바의 그 숫자보다 높지 않다는 ‘이스털틴이 역설’ 혹은 ‘행복의 역설’(유승무, 2009)이 성립한다. 실제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가장 많이 내보내는 나라 즉 멕시코, 콜롬비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나이지리아 등의 국민의 행복지수(The GDP of happiness)가 한국인 보다 높은 것은 물론이고 일본이나 프랑스인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스위스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유승무, 2009). 이렇듯 경제적 부와 행복지수는 비례관계를 지니고 있지 않다. 욕망을 충족하면 충족할수록 욕망의 크기가 동시에 커지기 때문에 행복지수는 결코 높아지지 않는다는 행복의 역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욕망을 충족시키면 오히려 행복이 줄어드는 행복의 역설(스튜어트 맥크리디, 2002)을 고려할 때, 일정정도 이상의 물질적 수준을 갖춘 이후에는 물질적 부와 행복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질적 요소 이외의 ‘또 다른 요소’가 투입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바로 정신적 웰빙(Mental well-being)이다. 만약 오늘날 한국인들이 물질적 웰빙(Material well-being)에 관심을 갖는 만큼 정신적 웰빙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래서 물질적 풍요만큼이나 마음의 풍요를 찾는다면, 한국인의 삶의 질은 한층 더 개선될 것이며 삶의 결은 훨씬 더 부드러워질 것 것이다(유승무, 2009).

- 
- 5) 저명한 경제학자인 잉글하트(Inglehart)는 경제성장의 효용제감 곡선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잉글하트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대략 1만 달러 내지 1만 5천 달러의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는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의 행복지수가 큰 폭으로 높아지지만, 일단 이 기준점을 넘어서면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개인의 행복지수는 높아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행복의 수준이 소득의 영향으로부터 분리된다고 해서, 이 기준점을 ‘결별점(decoupling point)’이라 부르기도 한다(이정전, 2007).

이렇게 볼 때, 물질적 웰빙 이외에도 정신적 웰빙을 매우 강조하는 불교는 최소한 불교적 여가활동에 참가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 매우 긴요한 자원이다. 만약 우리가 불교 속에 스며들어 있는 (embedded) 행복의 논리를 ‘불교의 행복방정식’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면<sup>6)</sup>, 불교의 행복방정식은 수행체험 참가자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 3) 불교적 여가활동과 행복의 관계

이상에서 논의했듯이, 오늘날의 세속적 잣대로 보면 불교적 여가활동과 행복의 관계는 독특하다. 특히 이 관계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여가활동과 그 전제로서의 육체적 행복 사이의 관계와는 대조적이다. 문제는 불교적 여가활동이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이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만약 우리가 전자를 존재형(불교형)이라 하고 후자는 소비형(세속형)이라 할 때, 존재형이 소비형에 비해 우위를 가져야 한다.

아래 <표 1>은, 존재형과 소비형을 비교해 보기 위해, 여가와 행복의 관계 유형을 도표화한 것이다.

표1. 여가와 행복의 관계 유형

|    |        | 행복      |          |
|----|--------|---------|----------|
|    |        | 육체적 즐거움 | 고로부터의 해방 |
| 여가 | 여가상품소비 | (가)     |          |
|    | 수행체험   |         | (나)      |

6) 이러한 불교의 행복 방정식에 따르면, 행복은 얻으려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나 고통의 조건을 가능한 한 피할 때 바로 그 결과로 수반되는 과보이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불행이나 고통의 조건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 즉 열반(nirvana)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지고의 행복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표 1>에서 (가) 유형은 오늘날의 전형적인 여가활동에 해당하는 데, 이 유형에 따르면 여가상품을 소비를 통한 욕망의 충족이야말로 즐거움 및 행복으로 귀결되지만 그 반대는 좌절, 고통, 불행으로 귀결된다. 반면 (나) 유형은 수행체험을 통한 행복추구의 유형으로서, 이 유형에 따르면 육체적 쾌락과 같은 세속적 즐거움의 단념은 말할 것도 없고 의식주의 욕구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최소화하며 오직 수행에만 몰두해야 고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행복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것이 육체적 즐거움으로 귀결되기도 하고 정신적 행복으로 귀결되기도 하며, 단기적 행복으로 귀결되기도 하고 영원한 행복으로 귀결되기도 하는데, 최근 한국불교의 여가활동과 행복의 관계는 후자의 전형적 사례이다. 실제로 오늘날 한국불교에서 실천하는 모든 수행프로그램은 여가프로그램으로 응용되고 있으며(수행의 여가화), 그 결과 여가시간은 수행체험으로만 채워지게 된다(여가의 수행화). 그리고 이러한 수행체험을 통해 행복에 도달하는 것이 불교적 여가활동의 목표다.

문제는 누가 (가) 유형의 대안으로 (나) 유형을 선택하느냐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나) 유형은 소수의 수행자에게만 열려 있었다. 일상생활 속에서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안(니르바나)에 도달하지 못하고 차안에서 이러 저리 바쁘게 돌아다닐 뿐이었다(Ratnapala, 1992). 실제로 한국불교에서는 20세기 까지도 일반인들에게 열반과 같은 지고의 행복은 ‘화중지병(畵中之餠)’ 일 뿐이었다. 그러나 혹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 및 일반인으로 하여금 행복의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불교적 여가활동이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다. 최근 한국불교의 각종 수행 프로그램은 바로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관건은 ‘이러한 수행 프로그램이 과연 참여자에게 얼마나 만족감을 주고 그래서 결과적으

로 그들의 행복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의 여부다. 그러면 최근의 몇 가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해 답을 찾아보자.

### 3. 불교적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자의 만족도

#### 1) 자료에 대하여

불교적 여가활동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수행, 단기 출가, 그리고 템플스테이의 사례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듯 사례를 제한한 기준이 바로 경험연구 유무인데, 선택된 사례는 모두 경험연구가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해운, 2009, 유승무·박수호·각정, 2008; 각정, 2009). 그러나 비록 선수행, 단기출가, 그리고 템플스테이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에 근거한 경험연구 결과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료가 단일한 사회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가 아니다. 그 중 하나는 필자가 직접 참여한 경험연구이지만 나머지 두 조사는 필자로서는 간접적으로만 참여한 다른 연구자의 사회조사 자료이다<sup>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다양한 경험연구의 자료를 사용하여 2차 자료분석법(secondary data analysis)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일한 사회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적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혀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서 전혀 다른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는 여가활동에 대해 단일한 사회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다른 연구자의 경험조사마저도 필자와 무관하지 않기

---

7) 해운과 각정은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필자는 이들의 석·박사 과정 지도교수로서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논문 전체를 지도했고 또 지도하고 있는 중이다.

때문에, 필자는 연구 설계에서 부터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이르는 연구 활동 전체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에 대한 접근도 상대적으로 용이하였다.

## 2) 몇 가지 경험 연구의 결과

### (1) 단기출가

월정사 단기출가학교는 2004년 9월에 개교하여 지금까지 폭발적인 인기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아래 <표 2>는 해운(2009)가 단기출가 참가자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표2. 주요 특성별 단기출가 만족도 비교

| 구 분     |       |       | 전체   |      |             | 기대 일치 |      |           | 다시 신청 |      |             | 타인 권유 |      |             |
|---------|-------|-------|------|------|-------------|-------|------|-----------|-------|------|-------------|-------|------|-------------|
|         |       |       | 평균   | SD   | 유의 수준       | 평균    | SD   | 유의 수준     | 평균    | SD   | 유의 수준       | 평균    | SD   | 유의 수준       |
| 일반적 특성  | 성별    | 남     | 3.45 | .98  | t=-4.090*** | 3.50  | 1.17 | t=-1.730* | 2.89  | 1.25 | t=-4.349*** | 3.91  | 1.14 | t=-3.692*** |
|         |       | 여     | 3.72 | .99  |             | 3.63  | 1.16 |           | 3.27  | 1.32 |             | 4.12  | 1.08 |             |
|         | 연령    | 10대   | 3.57 | .88  | F=2.910*    | 3.63  | 1.14 | F=.861    | 2.91  | 1.42 | F=6.328**   | 4.21  | 1.01 | F=3.953**   |
|         |       | 20대   | 3.77 | .86  |             | 3.63  | 1.14 |           | 3.39  | 1.18 |             | 4.28  | .96  |             |
|         |       | 30대   | 3.55 | 1.01 |             | 3.56  | 1.17 |           | 3.05  | 1.27 |             | 4.01  | 1.13 |             |
|         |       | 40대   | 3.57 | 1.01 |             | 3.54  | 1.14 |           | 3.06  | 1.31 |             | 4.00  | 1.14 |             |
|         |       | 50대   | 3.56 | 1.04 |             | 3.58  | 1.14 |           | 2.93  | 1.25 |             | 3.93  | 1.15 |             |
|         |       | 60대이상 | 3.22 | 1.05 |             | 3.27  | 1.17 |           | 2.32  | 1.27 |             | 3.63  | 1.12 |             |
|         | 교육 수준 | 고졸이하  | 3.74 | .95  | F=8.549**   | 3.63  | 1.12 | F=1.636   | 3.28  | 1.22 | F=9.079**   | 4.16  | 1.06 | F=3.973*    |
|         |       | 대졸    | 3.46 | 1.02 |             | 3.51  | 1.17 |           | 2.89  | 1.33 |             | 3.94  | 1.15 |             |
|         |       | 원 이상  | 3.51 | .97  |             | 3.44  | 1.17 |           | 2.96  | 1.31 |             | 4.05  | 1.05 |             |
|         | 혼인 여부 | 미혼    | 3.65 | .94  | F=1.854*    | 3.62  | 1.15 | F=1.532   | 3.17  | 1.28 | F=2.444*    | 4.14  | 1.07 | F=2.723*    |
|         |       | 기혼    | 3.53 | 1.04 |             | 3.05  | 1.16 |           | 2.95  | 1.30 |             | 3.94  | 1.14 |             |
|         | 종교    | 없다    | 3.38 | 1.01 | F=5.487**   | 3.44  | 1.12 | F=2.595*  | 2.78  | 1.29 | F=6.147**   | 3.90  | 1.20 | F=1.927     |
|         |       | 불교    | 3.65 | .98  |             | 3.62  | 1.14 |           | 3.15  | 1.29 |             | 4.08  | 1.08 |             |
|         |       | 타종교   | 3.52 | 1.06 |             | 3.36  | 1.28 |           | 3.00  | 1.29 |             | 4.00  | 1.22 |             |
| 단기출가 결정 | 신청 동기 | 없다    | 3.22 | 1.08 | F=3.763*    | 3.17  | 1.11 | F=2.509*  | 2.73  | 1.56 | F=3.317*    | 4.00  | 1.26 | F=.566      |
|         |       | 출가 준비 | 3.78 | .97  |             | 3.74  | 1.11 |           | 3.34  | 1.24 |             | 4.14  | 1.04 |             |
|         |       | 불교 관련 | 3.64 | 1.01 |             | 3.61  | 1.13 |           | 3.13  | 1.31 |             | 4.04  | 1.09 |             |
|         | 개인 관련 | 개인 관련 | 3.47 | .98  | *           | 3.46  | 1.17 |           | 2.93  | 1.27 |             | 3.98  | 1.16 |             |

주) \* p< .1, \*\* p< .05, \*\*\* p< .01 \*\*\*\* 해운(2009)의 분석 결과임.

<표 2>에서 특히 본 연구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변수는 ‘종교’와 ‘신청동기’인데, 그 결과를 보면 종교가 불교인 경우(3.65)가 타종교(3.52)나 종교가 없는 경우(3.38)보다 단기출가 만족도 평균값이 높았고, 단기출가를 실제 출가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생각하는 경우(3.78)가 평균값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다음으로 불교 관련된 동기를 가진 경우(3.64), 개인 관련된 동기를 가진 경우(3.4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기출가 신청동기가 없는 경우(3.22)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해운, 2009).

해운(2009)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하여 단기출가학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두 가지는 시설이나 프로그램(교과운영)과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과 같은 불교성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둘째, 단기출가 소임스님들과 월정사 스님들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게 나타난 사실에 기초하여 단기출가 기간 동안 스님들께서 닷선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기출가 수행자들을 배려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이다. 넷째, 단기출가 수행자의 종교와 단기출가 신청동기에 따라 단기출가 만족도가 달라지는 점을 감안하여 불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불교와 관련된 동기로 유도하거나 강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선수행

최근 선(禪)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전국의 사찰이나 선원, 도심의 시민선방에 선을 수행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 이들은 불교 외의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선수행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다. 선수행의 본질이 종교적 활동임에도 선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수적 효과, 즉 마음의 안정과

건강 증진이란 효과가 대중매체를 통해 소개되어 비불교신자들도 휴식이나 심신 회복의 수단으로 선수행에 참여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의 선수행은 점차 종교적 활동이 아닌 여가활동 즉 집중력 강화, 마음의 편안함과 건강 유지를 위한 정신 수행이란 성격으로 인식되고 있다(각정 2009).

각정(2009)는 전국의 선수행 도량에서 선수행을 경험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선수행의 여가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선수행 참가는 선수행을 통해 여가활동의 효과를 얻고 있으며, 선수행 수행기간이 길고 수행빈도가 많을수록, 수행방식이 적극적일수록 그 효과는 증가하고 있다.

표3. 선수행 참여 정도에 따른 여가기능 인식여부

| 변수   | 구분        | 여가기능      |           |            | Value  | df | Sig.   |
|------|-----------|-----------|-----------|------------|--------|----|--------|
|      |           | 없다        | 보통        | 있다         |        |    |        |
| 수행기간 | 5년 미만     | 41.9 (57) | 27.9 (38) | 30.1 (41)  | 22.254 | 6  | .001** |
|      | 5-10년 미만  | 30.1 (25) | 22.9 (19) | 47.0 (39)  |        |    |        |
|      | 10-20년 미만 | 36.7 (55) | 11.3 (17) | 52.0 (78)  |        |    |        |
|      | 20년 이상    | 26.3 (5)  | 15.8 (3)  | 57.9 (11)  |        |    |        |
| 수행빈도 | 매일수행      | 33.3 (75) | 15.6 (35) | 51.1 (115) | 14.645 | 2  | .001** |
|      | 가끔수행      | 41.6 (67) | 26.1 (42) | 32.3 (52)  |        |    |        |
| 수행방식 | 소극적 수행    | 47.1 (57) | 26.4 (32) | 26.4 (32)  | 19.684 | 2  | .000** |
|      | 적극적 수행    | 32.7 (84) | 16.7 (43) | 50.6 (130) |        |    |        |

주: \*  $p < 0.05$ , \*\*  $p < 0.01$  \*\*\* 각정(2009)의 분석결과임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각정(2009)는 ‘결국 불교신도들은 종교적 목적에 의해 선수행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선수행을 통해 얻는 효과로 인해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결론짓고 있다.

### (3)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는 문자 그대로 특수신분(출가자)이 아닌 일반인이 사찰에서 기거하면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데, ‘2002년 한일월드컵’이라는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를 계기로 한국사회에 정착하게 된 여가활동이다.

이렇듯 다소 엉뚱한 계기로 시작된 템플스테이는 시작부터 국내외적으로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아래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2002년 당시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은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불교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가질 수 있었고, 그만큼 그들의 만족도도 높았다(유승무·박수호, 2002).

표4. 템플스테이의 체험 결과

(단위:%)

| 나는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한국불교의 고유한 신비성, 경건함을 느꼈다       | 38.5   | 41.5 | 15.4 | 3.1    | 1.5       |
| 한국불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 49.2   | 34.1 | 15.2 | 0.8    | 0.8       |
| 교육적으로 유익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 40.2   | 35.6 | 20.5 | 3.0    | 0.8       |
| 한국 불교의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0.1   | 39.1 | 23.3 | 6.0    | 1.5       |
|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         | 30.6   | 27.4 | 24.2 | 10.5   | 7.3       |
| 한국 불교의 문화적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었다     | 39.8   | 38.3 | 19.5 | 0.8    | 1.5       |
| 독특한 건축과 조형물 등의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었다 | 55.7   | 29.8 | 13.0 | 1.5    | 0.0       |
|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었다          | 63.4   | 17.6 | 11.5 | 6.9    | 0.8       |
| 편안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누릴 수 있었다        | 30.3   | 36.4 | 23.5 | 8.3    | 1.5       |
| 한국 불교 교유의 생활방식을 경험할 수 있었다     | 56.5   | 29.8 | 11.5 | 2.3    | 0.0       |
| 한국 불교 교유의 수행전통을 알게 되었다        | 39.4   | 38.6 | 18.9 | 2.3    | 0.8       |
| 내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었다             | 29.2   | 37.7 | 25.4 | 4.6    | 3.1       |

\* 유승무·박수호(2002)의 분석결과임.



이후 템플스테이에 대한 내국인들의 관심도 크게 증폭되었으며, 그 여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는 템플스테이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기대에 지속적으로 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불교계로서도 템플스테이의 성공을 이어가는데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한 에너지들이 결합하여 템플스테이는 이제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유승무·박수호·각정(2008)에 따르면 템플스테이가 불교의 일상 생활을 경험하고 정신수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체험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아래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템플스테이의 경우 성수행이나 단기출가와는 달리 불교신자에게만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에는 부정적인 응답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템플스테이가 성수행이나 단기출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빨리 대중적인 여가로 정착해 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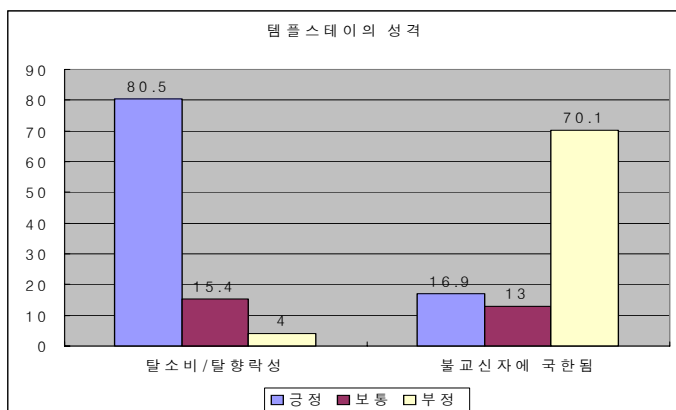


그림1. 템플스테이의 탈소비/탈향락성 및 불교국한성

\* 유승무·박수호·각정(2008)의 분석 결과임

### 3) 소결

이상으로 우리는 불교적 여가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단기출가가 가장 종교성이 강한 반면에 템플스테이가 가장 여가성이 강한 수행프로그램인데, 이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단기출가의 경우 출가를 고려하는 사람이나 불교에 대한 관심이 강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단기출가의 경우는 불교문화와는 무관한 외국인들에게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실행이력이 많고 신심이 깊은 불자에게는 종교성이 강한 프로그램이 더 적합한 반면에 신심이 약한 불자나 비불자들에게는 여가성이 강한 프로그램이 더 적합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템플스테이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불교적 여가활동은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향유하고 있는 소외된 여가생활의 상품화된 여가프로그램과는 다른 탈소비적이고 탈향락적 성격을 철저히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발견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즉 비록 참여자의 근기에 따라 다양한 불교적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겠지만, 모든 불교적 여가활동은 수행의 여가화와 여가의 수행화를 동시에 실현하여 여가와 수행이 상즉상입하도록 해야 하며, 그러할 때 불교적 여가활동은 소외된 여가의 대안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아래에서 이를 보다 자세하게 논의해 보자.

#### 4. 불교적 여가활동의 대안 가능성의 조건

##### 1) ‘종교활동으로서의 수행’에서 ‘여가활동으로서의 수행’으로

수행을 여가화한 불교적 여가활동이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수행은 장좌불와를 할 수 있는 최고 근기를 가진 수행자들만의 전유물이라는 선입견(혹은 오해)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입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교활동으로서의 수행이란 이미지가 여가활동으로서의 수행이란 이미지로 전환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변화는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 본 템플스테이의 성공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템플스테이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이라는 세계문화적 계기를 통해 한국을 세계에 알리려는 국가적 요구와 불교문화의 대중화라는 불교계의 요구를 절적하게 충족시키기 위해 우연히 탄생하였고, 때문에, 그 속에는 처음부터 문화적 정체성의 요소, 여가 상품적 요소와 불교전통으로부터의 유연한 이탈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 후 템플스테이는 자본주의적 소비사회의 상품화된 여가로부터 탈출하려는 대중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적 여가 문화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한국불교는 대중들에게 승가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발전시킴으로써 그러한 대중적 욕구와 대중적 인식에 부응하였다. 그 결과, 템플스테이는 여가상품적 요소와 불교문화적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반상품적 요소와 반전통적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부분적으로는 문화적 정체성의 요소도 포함하고 있는 매우 예외적인 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템플스테이는 일종의 사생아이다. 즉 상호 이질적이고 상호 모순적인 문화요소들이 혼용된 문화(hybrid culture)이다.

## 2) ‘창조·소비’ 지향적 여가에서 ‘존재’ 지향적 여가로

저명한 문명비평가였던 프롬은 현대인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느낀다는 점에서 철저히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고 진단함으로써 소비지향적 현대문명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대표적 저서 “소유냐 존재냐”에서 오늘날의 여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비판적 진단을 내린 바 있다: “여가에 관한 한, 자동차·텔레비전·여행·섹스가 오늘날 소비주의의 주요 대상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그것을 여가활동(능동성)이라 부르고 있지만 오히려 여가 ‘불활동(수동성)’이라 부르는 편이 나을 것 같다.(에리히 프롬, 1999)” 문제는 이러한 소비지향적 여가가 만족 및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데 있다. 프롬은 위 인용문 바로 아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비는 .. 또 더 많이 소비할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이전의 소비가 곧 그 욕구충족적 성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프롬은 일찍이 소비지향적 여가가 이른바 ‘행복의 역설’로 귀결될 뿐임을 암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이러한 여가만이 문제는 아니다. 이른바 ‘창조적’ 여가로 알려진 ‘정신적·육체적 휴식으로서의 여가’나 할 일 없는 시간 때우기와 같은 여가조차도 실은 철저히 자본(의 이해관계)에 포섭된 여가활동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여가야말로 실은 ‘노동을 위한 재충전으로서의 여가’에 다름 아니며, 또 그러한 여가인 한 여가는 비로소 ‘창조적’인 무엇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여가는 모두 - 그것이 소비지향적 여가이든 창조 지향적 여가이든 관계없이 - 실은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자본주의체제에 철저히 포섭된 활동일 뿐이며, 그러한 한 주체의 실현행위와는 무관한 활동이며 따라서 주체의 행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지도 않는 소외된 여가일 뿐이다.

반면에 불교적 여가활동은 소유(창조와 소비)로서의 여가활동이기 보다는 존재로서의 여가활동이다. 소유로서의 여가활동이 고정된 자아를 전제하는 여가활동이라면 존재로서의 여가활동은 모든 존재를 사물들의 결합과정, 능동성, 운동을 전제로 한 여가활동이다<sup>8)</sup>. 이는 불교의 존재론이기도 하다. 불교적 여가활동이 수행으로서 여가활동으로 특징지워지는 까닭이다. 실제로 수행으로서 여가활동은 칠불통계를 실천하는 여가활동이다. 그가 무엇을 하든 그리고 어디에 있는 순간을 아끼지 않고 선행하고 마음을 닦아야 한다. 심지어 차를 마시거나 잠을 잘 때도 이를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본래의 선한 불성을 회복해야 한다. 때문에 이러한 여가활동은 소유(창조와 소비)로서의 여가활동이기 보다는 바로 존재로서의 여가활동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활동은 감각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여가활동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수행으로서 여가는 불행과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감각적 즐거움을 가능한 한 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는 생각조차 버려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행으로서 여가를 가장 잘 보내는 것은 더 이상을 업을 반복하지 않는 상태 즉 ‘탈 창조적’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궁극적 목적, 즉 열반적정상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며, 그럴 때 주체는 안정적으로 행복의 나라에 살 수 있게 된다.

### 3) 수행과 여가의 상즉상입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 고통과 불안을 피하는데 있다면 그리고 고통이나 행복과 같은 결실은 행위주체의 업에 따라 사후적으로 주어진다

---

8) 여기에서 소유 및 존재 개념은 에리히 프롬의 개념을 차용한 것인데, “소유냐 존재냐(에리히 프롬, 1999)”라는 저서는 이를 가장 설득력 있게 논의하고 있다.

는 것이 불교의 교리라면, ‘제악막작 중선봉행(諸惡莫作 衆善奉行)’을 통해 악업을 줄이고 선업을 늘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탐진치와 같은 마음의 때를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自淨其意). 이는 고통을 피하고 행복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계율이자 모든 부처님들의 공통 가르침이란 의미에서 칠불통계(七佛通戒)라 한다. 이러한 칠불통계에 따르면 지계(持戒)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인간은 그가 노동을 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심지어는 혼자 조용하게 명상을 하더라도, 자신의 신(身)· 구(口)· 의(意) 삼업을 잘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행위자 자신이 자신의 삼업을 통제할 수 있는 힘 즉 마음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통제력은 자정기의(自淨其意)의 바탕 위에서 탄생된다. 모든 행위에 수행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물론 여가활동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불교적 여가활동은 공통적으로 수행프로그램을 내장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 살펴 본 불교적 여가활동 즉 각종 선수행 활동, 단기출가, 그리고 템플스테이도 공통적으로 수행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다. 어쩌면 프로그램 전체를 수행프로그램이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이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모든 사찰에서는 차(茶) 한 잔을 마시는 일도 수행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불교적 여가활동은 수행프로그램을 그대로 여가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수행의 여가화라 한다면, 사찰의 선무도나 선체조 그리고 절(108배 혹은 1080배)등이 불교적 여가활동으로 응용되고 있는 것이 수행의 여가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sup>9)</sup>.

문제는 여가의 수행화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다 많은 사람들로 하

9) 심지어 박수호(2006)는 선무도나 절이 어떤 여가기능을 수행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여금 오늘날의 소외된 여가 대신에 불교적 여가활동을 선택하도록 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불교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강한 만족감 및 행복감을 느껴야 한다. 제 2 장에서 논의한 불교의 행복관 및 행복방정식을 고려하면, 불교적 여가활동은 참여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제 3 장의 경험적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불교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수행이력이 많을수록 만족도 혹은 행복을 더 크게 느낀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한국인들이 삶의 소외를 더 크게 느낄수록, 그래서 자본(의 이윤추구)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인 주체를 찾기 위해 노력할수록, 그리고 스스로가 자신의 여가활동을 소유(창조적이고 소비적인) 지향적 여가활동에서 존재지향적 여가활동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바꾸어 나갈수록, 불교적 여가활동은 그만큼 대중화된다. 최근 한국사회의 수행체험 붐(Boom)은 불교적 여가활동이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만족스러운 여가프로그램으로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여가의 수행화라 한다면, 오늘날 한국사회는 그 과도기를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 5. 결론

오늘날 현대인들은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 심지어 소외된 여가생활도 그 일부이다. 그만큼 현대인에게는 정신적 웰빙이 결여되어 있다. 그런데 정신적 웰빙의 결여와 그로부터 파생된 문제 그리고 그 치유방법에 관한 한,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에서 불교만큼 보편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사상이나 종교는 없다. 붓다는 권력, 부, 명예를 버리고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궁극적으로 해방되는 해탈의 길을 찾았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바로 불교다.

불교에 따르면, 망념 혹은 무지와 그로 인한 탐욕과 증오가 건전하

지 못한 행위를 낳고 건전하지 못한 행위가 또 사회적으로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는다. 때문에 고통의 가장 근원적인 요인인 망념과 탐욕과 증오를 극복하는 길, 즉 수행이 곧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나 혹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행복은 육체적 즐거움이나 쾌락과 같은 감각적 행복과는 전혀 관계없다. 육체적 즐거움의 추구나 집착은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된다. 불교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안한 상태(심리적 안정 상태)이다.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수단, 즉 수행 프로그램이 불교적 여가활동으로 정착하게 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결과이다.

바로 이러한 불교적 여가활동이 최근 우리사회에서 붐(Boom)을 일으키고 있다. 해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불교적 여가활동이 여가상품소비 중심의 소외된 여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따져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무엇보다도 불교적 여가활동은 고통이나 불행을 피해야 한다는 불교의 행복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적 즐거움을 추구하기 보다는 정신적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수행 프로그램을 내장할 수밖에 없음을 이론적 차원에서 논증해 보았다. 다음으로 우리는 최근의 대표적인 불교적 여가활동 사례에 대한 경험연구의 결과를 분석하여, 불교의 행복관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불교적 여가활동을 통한 만족도 및 행복감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적 여가활동이 소외된 여가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템플스테이의 성공사례가 보여주듯이, 종교활동으로서의 수행이 여가활동으로서의 수행으로 응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수행의 여가화). 그러나 여가의 수행화도 동전의 또 다른 면(面)이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이렇듯 유의미한 발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결정적인 하나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에 부합하도록 설



계된 경험연구를 수행하지 못한데서 발생하는 한계이다. 그러나 사회 조사와 관련된 준비 부족 때문에 이 한계는 본 연구의 과제로 남겨 둔다.

## 참고 문헌

- 각 정, 2009, 「선수행의 여가활동 가능성에 관한 연구」, 『2009년 춘천여가대회 발표문』.
- 미산 외, 2009,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운주사.
- 박수호, 2006, 「불교의 여가관」, 『동양사상과 탈현대의 여가』, 계명대학교출판부.
- 유승무, 2009, 「현대 한국인의 행복지수와 불교의 행복방정식」, 『불교복지, 행복과 대화하다』, 학지사.
- 유승무·박수호, 2002, 「한국불교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 -템플스테이 참여 외국인을 중심으로-」, 『교수불자연합회 학술발표자료집』.
- 유승무·박수호·각 정, 2008, 「템플스테이, 여가상품인가 불교문화인가」, 『교수논문집』 T3집, 중앙승가대학교.
- 이정진, 2008, 『우리는 행복한가』, 한길사.
- 혜 운, 2009, 「단기출가 만족도에 관한 비교연구」,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논문집(미발간)』.
- 홍승표, 2006, 「수행과 낙도로서의 여가」, 『동양사상과 탈현대의 여가』, 계명대학교출판부.
- 스튜어트 메크리디 엮음/김석희 옮김, 2009, 『행복의 발견』, 휴머니스트.
- 에리히 프롬/최혁순 옮김, 1999, 『소유냐 존재야』, 범우사.
- Godbey/권두승 외 옮김, 2005, 『여가학으로 초대』, 학지사.
- Neulinger, J., 1974, *The psychology of leisure: Research approaches to the study of leisure*, Springfield: Charles Thomas Publishers.
- Ratnapala, R., 1992, *Buddhist Sociology*, Sri Satguru Publication, Delhi-India.

## [Abstract]

### **'Another' leisure trend in Korea : focused on Buddhist leisure**

Lew, Seung-mu

In recent years, more people are concerned about Buddhist life of leisure that is consisted of direct and actual experience of monk's ascetic practices in Korea. So, in this study we explored the reason why they participate in Buddhist life of leisure - what kind of happiness participants are experienced, who have more satisfaction through experiencing the practice- and whether Buddhist life of leisure is alternative to commercialized leisure or not.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l participant experienced a peaceful state of mind (psychological or mental well being) in stead of physical pleasure. I think it is related to Buddhist view of happiness by which we should remove the roots of suffering as such physical pleasure, lust, greed, anger etc. Second, the person who are more interested in Buddhist view of happiness has more satisfaction and feels more happiness. Third, to be alternative to commercialized leisure, Buddhist life of leisure is changed from monk's religious ascetic practices to ascetic practices as a life of leisure.

Key Words: 'another' leisure, buddhist life of leisure, buddhist view of happiness, mental well-being, ascetic practices.

유승무는 한양대학교대학원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중앙승가대학교 포교사회학과 교수 및 불교사회과학연구소 소장을 겸하고 있으며, 한국사회학회 산하 동양사회사상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불교복지, 행복을 만나다』(공저)와 『유교적 사회질서와 문화, 민주주의』(공저)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불교사회학의 성립 조건」과 「베버의 대승 불교 해석에 대한 비판적 이해」 등이 있다.

[2009. 9. 9. 투고; 2009. 12. 12. 수정; 2009. 12. 15. 채택]

